

주말 선수련회

편리하고 빠른 세상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이
우리의 느긋한 여유를 앗아갔음을 부인할 순 없겠죠.
조급하고 빠른 세상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히려 크고 많은 것에 정신 파느라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인간은 안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잡념 없이 기도를 올릴 때
자연히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는 삶의 고민 같은 것이 끼어들지 않기에
내 마음이 넉넉하고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행복하답니다.

아무 잡념 없이
마음에 여백 한 공간을 만들고 싶을 때,
마음 비울 곳 하나가 있어 추천해드립니다.
바로
나를 버리고 나를 찾는 맑고 향기로운 여행길!
‘길상사 주말 선수련회’입니다.



길상사는 수련형 템플스테이로 한달에 두 번 「주말 선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672-0035, 02)3672-5945

마음 · 세상 · 자연 맑고 향기롭게

2013. 6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3 / 6

다시 읽는 산방한담 4 시도 좀 읽읍시다

처음 마음으로 8 자력 수행(自力修行)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 15 아름다운 마무리 6월의 결연 대상자 - 김윤배 어르신

참교육 이야기 18 사회화과정 없이 사람구실을 할 수 있을까?

참 좋은 문화 길라잡이 22 통념과 상식에 대한 발칙한 문제 제기, (지금은 없는 이야기)

차내음 가득한 시간 26 홍차 이야기

가슴이 따뜻한 기업들 30 죽어버린 지구에선 할 일이 없다

사색의 뜰 36 내가 겪은 6·25 사변과 나의 첫사랑

향기나는 우체통 40 교도소에서 온 편지

향기나는 우체통 41 오뎅이 인생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2 중앙, 대구, 경남, 부산, 광주, 대전모임

길상사 소식 46



우리들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
나그네길이라면
뚜렷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허둥대게 마련입니다.

-법정-

표지사진 · 회원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3년 6월 1일 발행 / 통권 220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길상사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대전모임 : (042)823-0770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 kilsangsa@hanmail.net

시도 좀 읽읍시다

글 • 법 정(法 頂)

며칠 전 순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차안에서였다. 내 옆자리에 앉은 고등학교 3학년생이 시집을 펼쳐들고 열심히 읽는 걸 보고, 나는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다. 시를 읽는다는 당연한 사실도 새삼스레 기특하고 신기하게 여겨질 만큼, 우리의 우리들은 너무 메말라 버린 것이다.

더구나 입시지옥의 문 앞에 들어선 고3 학생이 시험공부와는 직접 상관이 없는 시를 읽는 걸 보니, 그가 얼마나 대견하고 믿음직스러웠는지 모른다.

그는 청마(靑馬)의 〈행복〉을 읽고 있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을 향한 문으로 술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죽한
얼굴로 와서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에게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 더 의지 삼고 피어 흥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뜻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그리고 보니 내 자신도 시를 읽은 지가 꽤나 오래되었다. 그날 그 학생 덕분에 다락에서 시집을 꺼내들고 밤이 깊도록 등불 아래서 두런두런 시를 읽고 있으니 뻑뻑하던 감성에 물기가 도는 것 같았다

시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시인의 관조(觀照)가 독자적인 리듬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 리듬은 물론 정제된 언어의 구성으로 울

려온다. 그리고 그 낱말의 언어는 시인에 의해 선택되고 창조된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국어의 아름다움은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의 연설문에서가 아니라 시인들에 의해 빛을 발한다.

눈이 있는 자 그림을 보고, 귀가 열린 자 음악을 들을 수 있듯이, 말과 글을 알고 감성이 투명한 사람이면 누구나 시의 세계에 닿을 수 있다. 우리들이 신문이나 잡지를 보고 TV를 시청하듯이 시를 읽는 것도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다

“시를 읽으면 품성이 맑아지고 언어가 세련되며 물질(物情)에 통달되니 수양과 사고 및 정치 생활에 도움이 된다. 시를 읽지 않는 사람은 마치 바람벽을 대한 것과 같다.”

공자의 말이다.

예전에는 시인이라는 전문가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식인이 곧 시인이었다. 그러나 요즘의 정치인들이나 경제인 혹은 학자들이나 지식인들한테서는 옛사람들이 지녔던 그런 멋과 풍류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들은 항상 긴

장된 상태에서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 차디찬 숫자만을 열심히 외고 있을 뿐이다. 어찌 그들만 이겠는가. 우리 모두가 숫자의 노예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우리들은 지성과 의지로는 제법 호기를 부리고 있지만 인간의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감성은 너무도 팍팍하게 메달라 있다. 그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환경 자체가 비정서적이고 비인간적이기 때문이다. 감성이 결핍된 인격은 온전한 인격일 수 없다. 우리 시대에 동양 최대의 운동경기장이 세워지고, 무슨무슨 회관과 기념관이 건립되고, 우뚝우뚝 고층 빌딩이 솟아오르는 것은 분명히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좋은 시가, 문학이, 예술이 창조되는 일은 그보다 훨씬 값지고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다. 육체의 힘이 국력이라면 정신력은 보다 큰 국력이 될 것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우리 고유의 말과 글을 쓰고 있으면서 세계의 언어시장에 민족의 서사시 한편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들을 우울

하게 만든다. 우리가 만든 상품과 노동력은 세계 시장을 넘나들면서도 정신문화의 소산인 언어예술은 이렇다 할 진출이 없다는 말이다.

곰곰 한번 생각해보 일이 아닌가. 육체의 힘과 기(技)를 겨루는 국제경기에서 그 순위와 메달에 그토록 집착하는 그런 관심과 열의와 재력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이라도 진정한 문예 진흥을 위해 기울인다면 그 결과는 곧 달라질 것이다. 돈만 뿌려준다고 해서 문학과 예술이 진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기금과 함께 표현의 자유와 발표의 기회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양식 있는 표현의 자유가 그 어디에도 방해받음 없이 누려질 때 겨레의 지성과 감성 그리고 슬기는 마음껏 날개를 펴 진정으로 문학과 예술이 진흥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시민의 것으로 생활화되어 마침내는 민족의 자질까지 드높이게 될 것이다. 한 편의 좋은 시는 우리들 마음에 낀 녹을 닦아내고 맑은 눈을 열게 한다. 베토벤의 말처럼

힘 훌륭한 시는 가장 아름다운 그 나라의 보석이 될 수도 있다. 우리 모국어의 아름다움과 그 잠재력을 시로써 드러내고, 또한 그걸 읽음으로써 삭막한 세태에서 오염된 우리들의 혼을 맑힐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과 경제인들의 입에서 시가 외어지고 공무원이나 사무원들의 메모지에 몇 줄의 시가 적히며, 밭가는 농부와 공장 근로자의 작업복 호주머니에도 시집이 들어 있고 주부들의 장바구니에도 싱그러운 봄나물과 함께 산뜻한 시집이 들어 있다면, 그래서 차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그걸 펼쳐들고 낮은 목소리로 읽는다면, 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물기가 돌고 아름답고 정다워질 것이다.

이 팍팍하고 막막한 세상에서 무엇에 쫓기지만 말고 영혼의 음악인 시도 좀 읽으면서 운치 있게 살아갈 일이다.

대 그림자 뜰을 쓸어도
먼지 하나 일지 않고
달이 물밑을 뚫어도
물 위에 흔적조차 없네.

야보 선사(治父禪師)의 <<금강경 송금剛經頌>>에서 읊긴 한 구절. 1983

- 산방한담 중에서 -

2013년 '숲과 함께 공존하는 전통마을을 찾아서' 안내

1. 일정 : 4월 ~ 11월 첫째 토요일
2. 답사지 : 6월-공주 생글마을, 마곡사, 7월-봉화 고택마을, 8월-성주 한개마을, 9월-영주 무섬마을, 10월-부여 반교마을, 11월-자원봉사자를 위한 숲기행, 충남 외암마을
3. 참가방법
 - 참가신청 : 숲기행을 다녀온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 준비물 : 점심, 식수, 간식, 모자, 등산화 필수, 돋보기, 필기구 등
 - 참가비 : 회원 25,000원 / 비회원 30,000원
 - 입금처 : 외환은행 301-22-00270-1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자력 수행(自力修行)

글 ● 德耘(스님)

오늘날 많은 신도분이 절에 다니면서 기도나 참선을 하고 계시지만, 올바른 기도나 참선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십 년을 절에 다닌 신도들조차도 요행수나 바라며 기도나 참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나 참선에는 요행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햇볕 아래에 있더라도 형상이 바르면 그림자가 바르고, 형상이 길면 그림자도 길고, 형상이 짧으면 그림자도 짧은 것입니다. 이처럼 불보살님의 자비는 중생들의 정성과 함께하지만 중생들은 그러한 사실을 잊고 요행수나 바라며 기도하고 참선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바른 불자라면 헛된 것에 의지하여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자기의 성품이 본래부처라는 확신을 갖고 자력으로 기도나 참선을 해야 합니다. 요행수를 바라고 하는 기도나 참선은 마음에 잔뜩 때를 끼게 하고, 점점 더 샅된 길로 빠져들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부처님의 정법(正法)과는 십만 팔천 리로 멀어져 버리고, 업장이 맑아지기는커녕 더욱더 두터워져 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참성품에서 연기(緣起)하는 뜻을 바로 알아서 요행수를 떠나 자력으로 기도하고 자력으로 참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업장이 녹아 저절로 맑

아지고 복은 또 저절로 찾아들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중국 당나라 때 무착선사와 문수보살의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력의 기도와 자력의 참선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합니다.

무착스님은 출가하시고 난 뒤 문수보살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스님은 문수보살의 진신을 친견하려는 원력을 세우고 향주로부터 오대산(청량산)까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온몸을 내던지는 오체투지의 절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오대산 금강굴 부근에 이르러 쉬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소를 거꾸로 타고 가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는 어떤 사람인데 무엇 하러 이 깊은 산중에 앉아 있는가?”

“예, 문수보살을 친견하러 왔습니다.”

“문수보살을 가히 친견할 수 있을까?”

말끝에 노인은 그 순간과는 전혀 어

울리지 않는 질문을 불쑥 던졌습니다.

“자네, 밥 먹었는가?”

“안 먹었습니다.”

“순 생짜로군.”

그리고는 소를 타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착선사는 이 노인이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얼마쯤 따라가다 보니 금색으로 휘황찬란한 절이 나타났습니다.

“균제야”

노인이 절을 들어서면서 시자의 이름을 부르자, 시자는 뛰어나와 소를 받아 메었습니다. 무착선사도 따라 들어가 앉아있으니 잠시 후에 차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찻잔이 전부 보석으로 이루어졌고, 차를 마시니 몸과 마음이 형언키 어려울 정도로 상쾌해졌습니다.

“세상이 이런 차가 있다니”

혼자 감탄하고 있는데 노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남방에서 왔습니다.”

노인은 찻잔을 들고 무착선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남방에도 이런 물건이 있는가?”
 “없습니다.”
 “이런 물건이 없다면 무엇으로 차를 마시는가?”
 무착선사가 대답을 못하자 노인이 또 물었습니다.
 “남방의 불법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무착선사가 대답하기를 “말법의 비구가 계율을 지키는 이가 적습니다.”
 “대중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혹 백 명도 되고 오백 명도 됩니다.”
 무착선사는 노인의 질문에 웬지 싱거운 생각이 들어 되물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불법을 주지(住持)합니까?”
 “범부와 성현이 함께 살고, 용과 뱀이 뒤섞여 있느니라.”
 무착 선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 대중은 얼마나 됩니까?”
 “전삼삼 후삼삼(前三三 後三三)이니라.”
 대중의 수를 물었는데 앞도 삼삼이요, 뒤도 삼삼이라니…….
 무착 선사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말 들 뿐이었습니다.
 그러저럭 날은 저물어 가고 무착스님은 노인에게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하기를 “염착(染着)이 있으면 잘 수 없다.”
 마음에 번민과 집착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착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집착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 계행을 지키는가?”
 “예.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염착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네는 여기서 잘 수가 없네.”
 닭아도 닭음이 없고, 지켜도 지킴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도 애써 지켜야 하는 단계에 있으니 염착이라고 한 것입니다.
 노인은 시자인 균제를 시켜서 무착스님을 배웅케 하였습니다.

무착스님이 밖으로 나오면서 절 이름을 물으니 “반야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한 노인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동자여, 내가 대중의 수를 물었는데 앞도 삼삼이요, 뒤도 삼삼이라고 하셨으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대덕이시여”
 무착이 고개를 돌리니 “그 수효가 얼마입니까?”
 무착스님은 더욱더 이해할 수가 없고 궁금해서 동자에게 범문을 청했습니다. “동자여, 나를 위해 범문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자는 무착스님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은 계송을 읊었습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쓸데없는 생각 말고 부지런히 참선

하라.
 날마다 하루 종일 누굴 위해 바쁠 건가.
 바쁜 중에 한가로운 소식을 알면 한 그루 연꽃이 끓는 물에서 피어나리.
 이 계송을 듣는 순간 무착스님은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무착스님이 고개를 들어보니 눈앞에 보이던 절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무착스님은 눈앞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였지만, 그때까지도 그 노인이 문수보살인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 뒤 무착스님은 오대산에서 돌아온 뒤에 열심히 정진하여 큰 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를 배우는 젊은 스님들의 공부를 돕기 위해 자청하여 공양주 소임을 맡았습니다. 어느 날 대중들을 위해 큰 가마솥에 죽을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가마솥에서 상서로운 광명이 나타나더니 문수보살이 연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이전에 꿈에도 그리던 문수보살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대중들은 절을 하면서 경탄하였지만 무착 스님은 주격으로 문수보살의 뺨을 후러치면서 소리쳤습니다.

“문수는 내 문수요, 무착은 내 무착이 나라.”

그러자 죽의 방울방울로부터 천만의 문수보살이 나와서 허공을 가득 채웠고, 무착 스님은 닥치는 대로 주격으로 쳤습니다. 이에 문수보살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무착 스님은 이 모든 것이 본성품이 연기하는 것을 알아 도를 완전히 성취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 외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샷된 것임을 알고 허공 속의 문수보살을 주격으로 치면서 물리쳤던 것입니다.

수행인이 도를 완전히 체득하게 되면, 그의 일거수일투족에는 아무런 조작도 없고 아무 걸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산하대지와 더불어 한 뿌리를 이루고 천지만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 되어서, 조작 없는 천연의 세계로 돌아

가게 됩니다. 또 이런 경지에 들어가면 티끌 미진수와 같은 많은 세계가 그대로 진여(眞如)의 모습입니다. 그대로 진리의 세계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타력에 너무 깊게 의존하면 마침내는 자기의 골수까지 빼주게 되므로, 타력신앙을 통하여 일정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오히려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중심을 가지고 타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는 곧 타력에 의지할지라도 모든 것이 자기의 참 성품이 연기하는 도리를 분명히 알고 의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비결이요, 참선을 통하여 해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요긴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또 법문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문을 들을 때는 자기의 생각을 비우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너무 조급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게으름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도(道)의 깨달음은 조급함이나 게으름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텅 빈 마음과 함께 합니다.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들을 때 그 법문(法門)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법문을 들을 때는 ‘쉽다, 어렵다는 생각이나, 잘 한다, 못 한다는 생각, 재미있다, 재미없다는 생각’도 모두 비워야 합니다. 그와 같은 생각들이 모두 번뇌 망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잡된 생각들을 완전히 비울 때 그 법문이 고스란히 내 마음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또 진정한 법문(法門)은 말로 설명하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빈 마음으로 설(設)하고 빈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법문을 들을 때는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번뇌 망상에 불과하니 이를 분명히 자각하여 마음을 비우고 법문(法門)을 듣게 되면 깨달음의 기연은 찾아들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법(法)

의 문(門)을 열고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요긴한 비결입니다. 똑같은 법문(法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도(道)를 깨치는 데 어떤 사람은 도(道)를 깨치지 못합니다. 법문(法門)을 듣고 독을 만들 것인가, 젖을 만들 것인가? 보리 죽 깨달음을 이룰 것인가, 생사(生死)를 이룰 것인가? 하는 그 열쇠는 각자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 헛된 생각을 가지고 말만 배우고자 하거나 지식 충족의 수단으로 법문을 듣는다면 생사(生死) 이외에는 이루어낼 것이 없지만, 스스로가 온전히 마음을 비우고 법문을 들으면 틀림없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문(法門)을 들었으면 깨달음을 이루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법문(法門)만 듣고 깨달음을 이루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항상 그 자리에서 진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법문을 듣고 경전을 배우는 것을 예로 들어본다면 지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을 가고자 한다면 우

선 지도를 보고나서 서울 갈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를 보고 서울 가는 길을 배우고 익혔으면 모름지기 서울로 가려는 노력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을 가자면 한걸음, 한걸음 서울을 향해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목적지(目的地)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서울 갈 길을 알고도 가지 않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서울에 도착하기를 바란다면 어느 세월에도 서울에 도착할 기약이 있겠습니까?

경전에

“三日修心(삼일수심)은 千載寶(천재보)요, 百年食物(백년담물)은 一朝塵(일조진)이라.” 하셨습니다.

그 뜻은 (사흘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백 년 동안 탐한 재물은 하루 아침에 티끌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에 때로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녁시간이 되면 공허해

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잠간잠은 자기를 정리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이삼십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고 정리하는 참선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쓸데없는 바깥일, 하지 않아도 될 일은 과감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재물이나 명예, 백 년 동안 쌓고 쌓아도 죽는 순간 모든 게 사라집니다. 그 재물과 명예를 쌓느라 알개 모르게 지었던 악업(惡業)만 가득 안고 원치 않은 다음 생(生)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과 부질없는 생각을 줄이시고 아침저녁으로 고요히 앉아 자기를 성찰한다면 맑고 밝은 마음이 싹이 틔입니다. 그렇게 맑히고 쌓은 마음의 공덕은 사라지지 않고 성불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함께하라는 행복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 불기 2557년 4월 초하루 법문
(2013년 5월 10일)

아름다운 마무리 6월의 결연 대상자 - 김윤배 어르신

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약간 형편이 나은 사람들로 정상적 생활은 하나 희귀난치성 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대표적이며, 안타까운 사연 또한 많습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생계가 어렵다든가, 개인의 질환으로 직장생활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자영업밖에 할 수 없다든가, 일단 소득이 얼마 안대니 아파도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 한 번 못하고 종합검진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이런 비참한 실정이지요. 검

사비라는게 MRI가 포함되면 보통 30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이 들어가니, 아파도 진통제만 먹고 살아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는 이러한 차상위계층과 저소득계층의 생활 실태를 알리고,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후원이 절실한 한 분의 사연을 매월 소개하고 거리 모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월의 결연대상자이신 김윤배 어르신(68세)은 만성 재발성, 다발성 골수염이라는 희소병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특별한 원인이나 치료 방법을 모른 채 근육에 종기가 생겨 살이 터지고 고름

이 흐르는 질환을 안고서 평생을 고생해야 했습니다. 전라남도 무안에서 태어나 15살 나이에 청운의 꿈을 품고 서울로 상경하였으나 19살 무렵 이 난치병이 발병하였던 것입니다.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신체 상태로 2년 동안 병원에 입원 치료하였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종양이 온몸에 나타나고 뺏속까지 전이 되는 고통으로 심해졌다고 합니다. 현재 어르신의 왼쪽 허벅지와 대퇴부는 나무 장작처럼 딱딱하게 굳어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미세혈관이 없어진 채 근육과 뼈가 뭉쳐져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나마 아픈 몸을 이끌고 생업에 종사할 때는 허벅지에 기저귀를 두르고 다시 비닐로 감싸 보았지만 고통에서 나는 악취까지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김윤배 어르신의 집에는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 배변활동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고, 발톱을 깎는 사소한 일상에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왼쪽 눈 부위에 주먹만한 종기가 부어올랐는데 다행히 종기는 가라앉았지만, 두통이 심해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증상이 발병하여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팔도 활동이 불편하여 주로 왼팔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6남매의 다른 형제들은 이미 사별하였거나 교류가 단절된 상태로서 명절이나 생일은 잊고 살아왔는데, 재작년부터 인근 장위사회복지관에서 생일을 기억하고 후원 품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큰 수술을 겪어본 어르신은 50대 중반부터 의료적 처방을 아예 중단해오고 있습니다. 약으로는 더는 치료될 수 없음을 확인해온 세월이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불치병이 고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하는 고기를 포함해서 잘 먹어야만 그나마 지병에 효과가 있다는 진단을 확인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생활비는 식료품비 특히 고기를 사 드시는데 많이 지출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난 1년 동안 일주일에 3번, 복지관을 통해 후원 되었던 우유 배달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윤배 어르신은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며 보증금 240만원을 매달 아주 조금씩 모아가는 중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별 볼 일 없이 구차하 기만한 이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르신은 자신의 삶에 대해, 나아가 우리 모두의 삶에 감사하지 않으려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별다른 취미는 없지만, 좌선을 익혀온 어르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이 몸뚱이에 대해 자포자기(自暴自棄)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다. 내가 걸어온 길 말

고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었음을 깨닫고 그 길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음을 믿는 것이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모든 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준 삶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다.’

『아름다운 마무리』의 첫 번째 장 「병상에서 배우다」에서 실려 있는 글처럼 자신의 고난을 수행으로 읽어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대장간에서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한번 뜨겁게 달궈서 내리 칠 때마다 더욱 단련되는 쇠처럼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김윤배 어르신에게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맑고 향기롭게
- 거리캠페인 일정 : 6월 8일(토) 지하철 3호선 홍제역 부근 6월 30일(일) 길상사 경내

사회화과정 없이 사람구실을 할 수 있을까?

글 • 김용택(교육 칼럼니스트)

1800년 1월 9일 프랑스의 생세랭이라는 마을에서 11~12세 정도로 보이는 한 소년이 발견됐다. 겉모습은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행동거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늑대와 흡사했다. 웃은 물론 입었을 리 없고 사람이 가까이 가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이 소년을 늑대소년이라고 불렀다.

이 '늑대소년'은 정부의 지원 아래 정신과 의사와 언어학자들의 손에 넘겨져 인간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유전인자는 사람의 것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밤이면 네 다리로 기어 다니고 늑대처럼 울부짖으며 날고기를 씹어 먹는 그를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인간 사회에서 격리된 환경에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 인간화가 아닌 늑대화된 사람이다.

인간의 사회화를 말할 때 흔히 이 일화를 예로 들곤 한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행동이나 가치관, 도덕이나 이성이 없이 본능대로 산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일컬어 '사회적인 존재(zoon politikon)'라고 규정했다.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것은 본능대로 살도록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사회화'를 통해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회화란 '개인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사회나 문화에 대한 적절

하고 바람직한 가치 규범을 내면화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 또는 조직·집단에 알맞은 행동양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이 사회화란 어떤 과정을 거쳐 가능하게 되는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앞의 생세랭이라는 마을에서 발견한 늑대소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은 의도적이든 무의도적이든 태어나면서부터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직도 유전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면 후천적인 학습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지는 학자들 간에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학습을 통해 사람의 행동과 가치관을 학습하게 되고 사람으로서 행동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인간의 사회화는 주로 부모가 전수해 왔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사회화의 기능은 전문가인 학

원이나 학교 또는 대중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행동이나 습관, 가치기준은 주로 의도적인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은 어떤가?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4,5,6학년 초등학교 4,3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초등학교 학생의 생활 및 문화실태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들이 부모와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30분 이내가 34.5%였으며 부모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어머니 19.8%, 아버지 30.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진다.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40.6%가 부모와 대화시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가 단절된 가정에서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랄까? 학교와 학원을 전전하면서 부모와 대화도 없는 아이들은 기초적인 생활습관이나 행동양식을 배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다

는 말이 있다. 그만큼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는 부모의 과육으로 하루 5~6개 학원을 전전하기까지 한다. 아이가 놀면 불안한 어머니. 어린이는 학원에서 피아노나 미술, 컴퓨터와 같은 지식과 기능만 익히면 인간으로서 사회화될 수 있을까?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 사회화된다. 또래집단이 인간의 사회화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전술한 늑대소년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 질서를 배운다. 타협과 양보는 말할 것도 없고 자의식이나 사회성, 협동심, 인내심,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는 마음과 질서의식은 물론 민주 의식 등과 같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품성을 사회화할 수 있는 기회다.

아이들에게 놀이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것은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학원이나 학교에서 관념적인 지식교육으로서 절대로 불가능한 인간으로서 품성을

구체화하는 기회가 바로 놀이라는 것은 수많은 학자가 주장한 지 오래다.

사회화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가정은 어떤가?

학교 교육을 일컬어 위기라고들 한다. 그렇다면 가정은 어떻게? 부부가 함께 일터로 나가면서부터 가정에서의 사회화는 기대할 수조차 없게 됐다. 잠도 덜 깬 아이를 들쳐 업고 어린이집에 맡긴 채 종종걸음으로 직장으로 향하는 엄마·아빠들…….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역할수행에 대한 사회화는 가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화 과정이다. 그런데 가정이 실종된 아이는 무얼 보고 듣고 배울까?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과 좋은 어린이 집에서 배운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서 받는 사랑이나 정서적인 안정감을 대신해 줄만큼 좋은 기회는 없다. 부부가 출근 시간이 달라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고 자라는 아이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자랄까? 여가다 이혼이나 혹은 사망으로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정서교육은 누가 채워 줄 것인가?

가정교육이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학교가 이를 보완해 줘야 한다. 그러나 학교까지 무너진 마당에 아이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

무너진 가정, 무너진 학교……. 그렇다면 아이들이 자라는 사회는 어떻게? 산업사회에서 교육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가정이나 학교가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 상업주의에 내맡겨지게 된다. 게임방이며 오락실, 만화방 스마트폰 그리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텔레비전이 교육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대중매체가 다 자본의 논리나 상업주의에 매몰돼 교육의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아니다. 사회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의도적인 사회화 과정을 밟지 못한다면 결국 개인의 욕구충족에 만족하는 본능이 지배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본의 논리가 청소년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사회에서는 말이다.

사회화는 개인의 일생에서 일정 기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사회변화나 환경이 달라지면서 재사회화나 예비사회화는 필연이다. 이러한 교육의 기능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 피해는 자녀들에게 돌아간다. 자녀의 성장 과정에 따라 가정교육을 보다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심리적 특성이나 적절한 환경조건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재사회화)은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은 생애를 통해 사회화된다.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삶의 주체로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학창시절 교과서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 더구나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 과거 어느 시점에서 얻은 넓은 지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은 물론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불행한 일이다.

통념과 상식에 대한 발칙한 문제 제기, <지금은 없는 이야기>

글 • 서정민갑(대중음악의전가)

세상은 언제나 많은 문제로 가득합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싸우고, 죽이고, 다치는 소식들이 잠시도 끊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과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은 한 둘이 아닙니다. 특히 개인 대 개인으로 벌어지는 문제와 범죄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못한 것을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회의하게 될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는 인간이 집단화된 인류 문명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다 똑

같이 소중하고 평등한 존재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인간이 서로 평등하다고 말하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법적으로는 평등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지어도 금세 풀려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추징금 1,672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여자라고 차별하고, 특정 종교를 믿는다고 차별하고, 성적 취향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차별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차별합니다.

비정규직이라고 차별하고, 돈이 없다고 차별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차별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해서는 안 되는 생각과 행동, 안 할 것 같은 생각과 행동을 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원인이고, 불평등한 법과 제도가 남아 있어서 제대로 평등과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도 원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에 대해 분노하지 않거나 저항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고,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많은 사람들은 비정규직 문제와 실업 문제가 생기게 되는 제도를 고치려고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든 정규직이 되려고 애쓰고, 취업하려고 애쓸 뿐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신 故 이소선 님이 생전에 하신 얘기가 생각납니다.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이다 시청 앞에 모여서 일주일만 싸우면 노동자들

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가 해고라도 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흔히하는 말로 먹고살려니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해관계 때문에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보다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침묵하게 하고, 견디게 하는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라고 하면 매우 거창하고 심각한 무엇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해봤자 안된다.' 같은 이야기들은 거창하게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 않지만 많은 이들이 들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는 무언가

나서서 해보려고 했던 이들은 늘 피해를 받기 일쑤였고 그래서 이렇게 회피하고 외면하는 이데올로기가 보편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속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자기 계발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타하지 말고 스스로 긍정하고 노력하라는 이야기로 업그레이드되어 술하게 퍼져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자기 계발이라는 코너가 가장 인기 코너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젊은 만화가 최규석이 그린 <지금은 없는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현실을 감내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를 전파시키는 이야기들에 대한 도발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순수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훨씬 뼈뚫한 이야기입니다. 개과천선이나 권선징악, 인과응보 같은 행복한 결말은 없습니다. 뭇든지 가위 바위 보로 결정하는 마을에서 손을

다친 후로 주먹을 펼 수가 없게 된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우화와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는 원숭이 두 마리에게 주인이 먹이의 양을 다르게 주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우화는 세상의 권력과 복종의 이데올로기를 날카롭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흰 고양이와 흰 쥐의 이야기, 흰 염소만을 사냥하는 늑대들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고,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대신 최규석은 현실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들의 이면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이래도 세상이 평등하고 문제가 없느냐고, 우리는 아무 것도 잘못한 것이 없느냐고 되묻습니다.



이 책은 사회구조나 체제의 문제점은 간과한 채 모든 것을 개인의 탓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프레임에 제동을 거는 새로운 우화들을 선보이며, 우리가 처한 현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최규석의 이야기가 돋보이는 것은 단지 세상의 문제를 고발하고 증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문제를 우화로 바꾸어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 문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은 우리의 무관심과 체념, 그리고 자발적 복종임을 통렬하게 후려치며 드러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가 힘들어지는 이유라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노력해서 세상을 바꾸면 지금보다는 덜 힘들 수 있는데, 서로 경쟁하며 자기만 살겠다고 하니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규석은 바로 그 이야기를 깨야 한다고 합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믿게 만들고, 현재의 문제를 그대로 두게 만드는 이야기를 깨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식과 통념의 반대편에 선 이야기는 때로는 발칙하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좋은 차와 좋은 집을 사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살다 죽고 말 것입니다. 다 똑같은 삶의 모델을 향해 달려가는 불행한 사회. 하지만 더 많은 부와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된 사회는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2004년 오늘의 우리만화상을 수상하고 2011년 부천국제만화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젊은 만화가 최규석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밖에도 많습니다. 책에 수록된 우화들은 짧고 만화 형식이라 읽는데 재미있고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입에 쓴 약이 몸에는 더 좋습니다. 달콤한 감언이설보다 냉정한 죽비가 더 필요한 세상입니다.

홍차 이야기

글 • 문정숙

5월 1일, 친구와 나는 인도 여행을 다녀온 지인이 베푸는 차자리에 초대받아 복사꽃이 만발해 있다는 충주로 향하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핑크빛으로 화사하게 물들어 있는 복숭아 꽃길을 지나며 우리는 '봄치녀', '과수원길', '고향의 봄'을 합창하다.

조팝나무 꽃이 새하얗게 무리지어 피어있는 담장 옆, 아담한 시골집에 다다라 안채에 들어서자 웅기종기 들어앉은 장독과 마당가에 피어난 갖가지 야생화가 주인과 함께 소박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이한다.

간간이 들려오는 새소리와 인도의 음률이 조화를 이루는 다실에서 다질링 홍차의 붉은 빛깔에 매료된 우리는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담겨있는 홍차의 세계로 들어가다.

1. 홍차란

차(학명: camellia sinensis (L.) O. Kuntze)는 동백나무과에 속하는 아열대성 상록의 다년생 종자식물로 하나의 차나무에서 채취한 잎이라도 발효된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차가 만들어진다. 6대 차류 중에 홍차는 발효정도가 80% 이상인 완발효차로서, 완성된 찻잎의 빛깔이 검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홍차를 'black tea'라고 부른다.

연평균 기온이 14-16℃이고 연간 강수량이 1,300mm 이상으로 일교차가 크고 공중습도가 높은 지역이 우수한 차

가 생산되는 곳인데, 적도와 북회귀선 중간에 해당하는 티벳트(tea belt)라고 불리는 지대의 산악지에서 자라는 차나무는 특히 폴리페놀류 함량이 높아 홍차 만들기에 적합하므로 홍차생산지는 대부분 여기에 분포되어있다.

오늘날 홍차를 만드는 차나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섬세한 맛과 풍부한 향을 지닌 중국종과 인도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는 카페인 함량이 높고 강한 맛과 묵직한 향을 지닌 아쌈종,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교배한 클로날종이다.

2. 홍차의 제다법

홍차는 17C 초 중국 복건성의 송안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홍차를 만드는 기본 공정은 채엽-위조-유념-발효-건조 순으로, 제다 공정에 따라 생잎을 자르지 않고 통잎으로 제다하는 정통식 홍차(Orthodox 공법)와 과립형의 홍쇄차(CTC 공법)로 나누어진다.

- 오소독스(Orthodox)공법

1) 위조(Withering) : 생잎을 시들리는 과정으로 위조는 각 다원의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인공위조와 자연위조의 방식이 있다. 찻잎내 수분 증발과 호흡작용에 의해 다당류의 감소와 염록소분해, 아미노산 등의 증가가 일어나며 산화효소(polyphenol oxidase)의 활성화로 발효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공정이다.

2) 유념(Rolling) : 찻잎 조직 속에 들어있는 유효성분이 뜨거운 물에서 잘 우려나올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세포를 파괴하며, 폴리페놀류 효소촉매 산화작용을 가속화시킴과 동시에 찻잎의 형상을 만드는 공정이다.

3) 발효(Fermentation) : 찻잎의 주 성분인 폴리페놀이 산화효소에 의해 일련의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으로 홍차의 품질을 형성하는 결정적 공정이다. 날씨 등 외부환경의 장애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발효실은 24-25℃, 상대습도 95%를 기준으로 자동온도·습도 조절기를 설치하고, 생산자가 원하는 빛깔과 향기가 발생하는 정점에서 발효를

멈추고 즉시 건조기로 옮긴다.

4) 건조(Drying) : 고온의 열풍으로 찻잎의 지속적인 발효를 중지시키는 동시에 함수량을 3%로 내리는 건조공정이다.

- CTC공법

아쌌지역, 차나무의 생육이 더욱 왕성한 우기에 다량으로 수확된 생잎의 장시간 저장 및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1930년 W·Mckercher가 개발한 CTC공법(Crush, Tear, Curl)은 단시간에 대량생산이 가능하므로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친 잎으로도 균일한 차를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위조와 유념공정을 거친 찻잎을 잘게 부수고, 자르고, 둥글게 성형하여 만든 CTC공법의 홍차는 아주 짧은 시간에 차의 성분이 진하게 용출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강한 맛을 즐기는 소비자들 간에 선호도가 높다.

3. 홍차의 원산지

1) 다질링(Dajeeling) : 인도어로 '천둥 치는 계곡'이라는 뜻을 지닌 인도 서쪽 벵갈의 북쪽 끝 히말라야산맥 고원에 위치한 다질링은 히말라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 비도 잦고 일교차도 매우 크다. 덕분에 더욱 깊고 오묘한 맛과 향기를 머금게 된 찻잎을 3~11월에 채취하여 홍차를 생산하는데 수확시기에 따라 첫물차, 두물차, 몬순차, 가을차로 나뉜다. 다질링홍차는 채취하는 시기마다 계절적 변화를 품고 있는 성숙한 차로써 맛과 향이 독특하여 차애호가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 아쌌(Assam) : 인도 북동부 아쌌주의 브라마푸트라 강 유역에 있는 최대 차산지로 몬순기후라서 강우량이 많고 토양이 비옥해 차 재배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쌌홍차의 90%는 CTC공법으로 만들어지므로 티백용으로도 많이 쓰인다.

3) 스리랑카(Ceylon) : 인도의 남쪽 바다에 있는 눈물방울 모양의 섬, 실론은 스리랑카의 옛 이름이다. 실론은

1972년 영국 연방에서 독립한 뒤 오래 전부터 그곳의 원주민이 불려왔던 이름인 스리랑카로 국명을 바꾸었다. 실론티는 스리랑카에서 생산되는 모든 홍차를 말한다.

4) 우바(Uva) : 스리랑카 남동부 중앙산맥 동쪽에 위치한 우바주에서 생산되는 '우바차'는 6~9월에 남쪽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공기가 우바홍차의 자극적이고 강한 맨톨향을 만든다. 8~9월에 수확한 우바차는 최고의 맛과 향을

지닌다.

5) 기문(Keemun) : 중국 안휘성 서남부에 위치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황산 자락에 자리 잡은 기문현에서 중국 전통방식으로 생산되는 홍차는 동양의 수려한 산세를 닮은 듯 신비로우면서도 기품이 넘쳐 차의 종주국인 중국에서도 귀한 차로 대접을 받는다. 특히 난향이 나는 홍차를 최상급으로 치는데 기문은 고급 홍차 브랜드의 브랜드베이스로도 많이 쓰인다. (계속)

향기가 묻어나는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 그리고 길상사 신도님 더 나아가 여러 독자님의 따뜻한 마음과 향기로운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소소한 이야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가슴 찡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또는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적인 삶을 실천하는 자신만의 이야기나 수행과 신행 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느꼈던 내 마음 안의 깊은 총탄함이나 내면의 이야기를 이웃들과 나눠주세요.

- 원고를 보내주실 때는 본인의 소개(약력, 연락처, 주소, 전하고 싶은 말씀)를 적어 보내주세요. 원고 채택 시에는 법정 스님의 저서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죽어버린 지구에선 할 일이 없다 - 파타고니아

글 • 변택주

‘죽어버린 지구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 벤추라 Ventura 카운티에 있는 스포츠용품 업체 파타고니아 Patagonia에 들어서면 바로 눈에 들어오는 문구다. 미국 환경단체 시에라 클럽 Sierra Club 회장 데이비드 브라운 David Brower가 남긴 말로 파타고니아의 지향점이다.

등산복은 목숨 줄

1957년 미국 등반가들 사이에 한 청년이 입에 오르내렸다. 화덕과 연장을 차에 싣고 다니는 이 청년은 등반을 하면서 암벽을 타는데 딱 맞는 장비를 직접 만들어 쓰며 팔기도 했는데 이 장비들이 등반을 함께 하는 동료들 사이에

서 인기가 높았다. 어려서부터 산을 무척 좋아했던 이본은 열여섯 살에 처음으로 암벽등반을 하고나서 암벽 타는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 비싼 장비를 살 돈이 없어 직접 장비를 만들어 산을 타다가 1964년 등반 동료들 몇과 함께 아에 장비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나 목적은 어디까지나 장비 만들기가 아니라 산타기에 있었다. ‘취나드 등산장비 회사’ 카탈로그에는 ‘등산철인 5월부터 11월 사이에는 빠른 남풍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을 적어 넣을 만큼 이들은 등산에 빠져 살았다. 이본 취나드가 사업을 등산복 제조로까지 늘리고 회사 이름을 ‘파타고니아’로 바꾼 뒤에도 바뀌지 않았다. 걸핏하면 장비나 옷을

실험한다는 핑계로 사업은 동료들 손에 맡기고 모험을 즐기러 떠나곤 했다.

사업보다는 산을 더 좋아했던 청년이 어떻게 세계를 아우르는 아웃도어 회사를 만들 수 있었을까? 등산장비는 사람 목숨과 바로 이어지는 제품이어서 잘못 되면 누군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기에 품질이 어떤 가치보다 앞선다. 이본과 동료들은 자신이 으뜸 고객이었기에 “이 장비에 내 목숨이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장비를 만들었다. 이본은 등산복이 단순한 ‘옷’이 아닌 ‘입는 장비’라고 말한다. 높은 산에서 체온을 지키는 일은 목숨과 바로 이어지는 일로 그 몫을 맡고 있는 장비가 바로 등산복이기 때문이다. 1970년 겨울 등반에 나섰



1979년 후드 산에 오른 이본 취나드

던 이본 취나드는 격렬한 몸싸움을 견뎌낼 만큼 튼튼한 럭비 유니폼을 보고 등반할 때 입으면 상처를 덜 입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 등산복 개발에 매달렸다. 예상은 과녁을 꿰뚫었다. 파타고니아 등산복은 기능이나 안정성에서 등산가들 사이에서 명성이 높다. 이본 취나드 평생 등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보다 튼튼하고 등산장비를 편히 보관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드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고산지대 등반을 나선 동료들이 모진 추위에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고 나서 목숨을 살리려면 옷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 생각이 미친다. 1976년 업계에서 가장 먼저 모직보다 가볍고 보온력이 뛰어난 폴리에스터 등산복을 선보인 데 이어 1980년에는 가벼우면서도 물기를 머금지 않는 새 소재를 쓴 등산용 내복을 내어놓았다. 아무리 따뜻한 등산복을 입어도 안에 입은 면내의가 땀을 머금은 채 얼어붙으면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이었다. ‘목숨에 초점을 맞춘 등산복’이었다. 이 철학이 파타고니아를 ‘사랑

받는 기업'으로 만들었다.

파타고니아 직원들은 근무를 하다가 좋은 파도가 오면 언제든지 파도를 타러 나갈 수 있다. 스키를 타거나 등산을 하러 갈 때도 모든 돈은 회사가 낸다. 이본 취나드도 역시 회사를 경영하다가 문득 한 생각이 떠오르면 업무를 내려놓고 등반가로 모험가로 온 누리를 누빈다. 이본 취나드는 70살이 넘은 나이에도 한결같이 서핑을 즐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등반을 잘 하려고 회사를 만들었기에 일과 놀이 구별이 없다. 직접 즐겨본 사람만이 으뜸가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파타고니아에서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종합건강보험을 들어준다. 이본 취나드가 그랬듯이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서 모험을 즐기려는 스포츠광들을 회사로 끌어들이려는 생각이었다. 모험을 즐기는 파타고니아 직원들에게 '등산장비'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언젠가 산 속에서 위태로워졌을 때



강연을 마치고 사인을 하는 이본 취나드

니를 지켜줄 '목숨줄'이기 때문이다.

더 적게 사야 잘 사는 것

아웃도어는 기능과 간단함 바탕에서 수리가 쉬워야 한다. '환경에 아주 적은 영향을 미치면서 가장 으뜸가는 제품'을 만드는 일은 파타고니아가 세상에 있어야 하는 까닭이자 파타고니아 주춧돌이다. '파타고니아 디자인 체크리스트'를 몇 가지 살펴본다

- 기능은? 파타고니아는 이 옷이 무더운 적도에 필요한가? 아니면 덥지만 건조한 데서 입을 것인가? 몸에 딱 맞아야 하나? 빨리 말라야 하니 느슨하게 잔섬유여야 할까? 모기가 물지 못하도록

조밀해야 하나? 여러 고민 끝에 소재를 결정한다. 그리고 장비를 온전히 자기 등에 짊어져야 하는 산악인들에게, 되도록 한 가지로 여러 용도에 어울려 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그래서 이본 취나드는 "더 적게 사야 잘 사는 것(Buy less, buy better)"이라면서 살 품목을 줄이도록 하는 디자인이 으뜸이라는 힘주어 말한다.

- 오래 쓸 수 있나? 물건을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는 그 물건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얼마나 버티느냐에 달렸다. 파타고니아 연구소와 생산현장에서는 어디가 먼저 닳는지를 찾아내 강화하고 그 다음에 먼저 닳는 데를 찾아내면서 제품이 골고루 닳는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실험을 거듭한다. 그렇지만 수선을 꼭 해야 하는 곳은 수선이 쉽도록 만든다. 이를테면 지퍼 박음은 뜯기 쉽게 한다든지.

- 관리와 세탁이 쉬운가? 옷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보면, 옷을 사고

난 뒤에 일어나는 문제가, 만들고 운반할 때보다 네 곱절이나 더 환경을 더럽힌다는데 있다. 이본 취나드는 말한다. 여행복은 싱크대나 요리냄비에 담아 빨아서 차마 밑에 넣어 말려 입을 수 있어야 한다. 환경과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다림질은 전기 낭비, 뜨거운 물에 빨면 열손실, 드라이클리닝에는 독극물이 들어가기에 환경에 좋지 않다. 옷을 세탁기에서 말리면 입을 때보다 더 빠르게 닳아 옷 수명이 크게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찬 물에 빨아 줄에 넣어 빨리 마르는 재질을 가진 옷일수록 좋다.

-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는가? 파타고니아는 농약을 쳐서 기른 목화를 쓰지 않는다. 독성염료를 쓰지 않고 재생 염료를 쓰고 책임감 있는 회사하고만 거래를 한다. 또한 쓰레기를 되살려 쓰고 콜라병을 녹여 되쓴다. 자사 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살려 "요람에서 다시 요람까지(Cradle to Cradle)" 책임진다. 이는 생각에서 파타고니아는 끝없이 되살아나는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식스

같은 소재로 바지를 만들어 닳아서 더는 입을 수 없을 때, 되돌려서 다시 옷을 만들어 입는 무한 리사이클을 꿈꾼다.

사람과 환경을 살리는 회사

이본 취나드는 회사를 세우고 얼마 되지 않아 주력제품이었던 '피톤'이란 장비가 암벽을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산을 멈춘다. 회사가 궤도에 올랐을 때 이때 일을 떠올린 이본 취나드는 '환경과 사람을 살리는' 제품을 만들어야하겠다고 마음을 굳힌다. 그리고 파타고니아에서 만든 모든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환경에 이롭지 못한 제품을 모두 바로 잡아 간다. 그때부터 이제까지 파타고니아는 소재는 물론이고 생산에 쓰이는 해로운 물질을 모두 가려내어 하나하나 다른 물질로 바꾸어 가고 있다.

1985년부터는 이익 10퍼센트와 매출 1퍼센트가운데 더 큰 금액을 환경을 지키는 일에 내어놓고 있다. 또한 캠프를 열어 환경운동가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한 해에 두 달까지는 환경운동을 하려고 회사에 나오지 않더라도 봉급을 주는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큼 환경

운동에 정성을 쏟고 있다. 한 등반가의 도전으로 비롯된 파타고니아 노력은 이제 세상을 바뀌어가고 있다. 나이키와 리바이스, 갭같은 대기업들도 파타고니아 뒤를 이어 유기농 면화따위 친환경소재를 쓰기 시작했다. 또 파타고니아 지원으로 맵이 없어진 곳에 연어가 돌아오고 수백만 에이커 땅이 자연보존구역이 되기도 했다. 결코 기업가가 되려 하지 않았던 이본 취나드는 자신을 '그저 산을 좋아하는 대장장이'라고 여긴다.

파타고니아는 사업 초기부터 중역들 개인사무실을 두지 않았다. 불편했지만 소통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이다.



1979년 후드 산에 오른 이본 취나드

그리고 카페테리아를 만들어 채식 위주 건강식을 직원들이 언제라도 생각날 때 먹을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이본 취나드의 부인이며 동업자인 멜린다가 우겨서 회사가 작았을 때부터 '태평양 어린이 개발센터'라는 직장 탁아소를 열었다. 어린이들이 회사 마당에서 뛰어놀고 엄마 아빠와 함께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회사 분위기는 살갑고 따뜻해졌다. 갓난아이를 둔 직원에게는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를 편의에 따라 자유로이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만들었던 회사사규는 뒷날 연방 법률로 발전했다.

파타고니아를 주식시장에 상장했다라면 이본 취나드는 엄청난 부를 거머

쥐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 해 1억 달러도 훨씬 뛰어넘는 매출을 올리는 중견 기업 파타고니아는 부인과 또 다른 한 사람이 동업하는 비상장회사이다. 상장을 하면 주주들이 보다 높은 수익을 요구하고 나설 수 있고, 그러면 환경과 사람을 바탕에 둔 파타고니아 원칙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며 돈보다는 사람과 환경을

고생이에 둘 때

결고운 이익과 즐거움이 뒤를 따른다.

그림자가 주인을 따르듯이.

하나의 작은 정성이 모여 큰사랑의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후원해주시는 후원금은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기 위한 활동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 자연을 보존, 보호하는 일 등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활동에 쓰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나눔이 절실한 우리 이웃, 군부대, 교도소, 병원 등으로 맑고 향기로운 메이리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사랑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 일반사업후원계좌 : (사) 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 외환은행 117-13-60373-4 /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 (사) 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 문의 : 02)741-4696-7

내가 겪은 6·25 사변과 나의 첫사랑

글 • 이용현

해해마다 6월이 되면 정겹게 생각나는 것들/서울 성북구 정릉 골짜기의 맑은 물, 골목 너거리의 우물이 있는 우리 마을/남쪽 첫 번째 펌프 샘이 있는 기와 지붕 우리 집, 골목에서 소꿉놀이/옥돌로 길바닥에 글씨와 그림을 잘 그려주었던 병어리 형제, 여러 친구들……

여러 가지 상념 중에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나는 돈암 초등학교 3학년/“오빠 오빠”하며 나를 따르던 눈이 크고 얼굴이 까만/여자아이 순덕 초등학교 2학년/“순덕·순덕 거지 때들이 양손에 깡통 들고 이리모여라!”/놀렸던 여자 아이가 늘 보고 싶다.

정릉 개울물에 벌거벗고 미역 감고,

바위 위에서 다이빙 하고/송사리 개구리 알 잡으며 놀았던 일……/겨울에는 스케이트와 얼음지치기, 아름다운 어린 시절 소꿉놀이/“나는 커서 지금처럼 오빠 색시 될 거야!”/하던 말이 아련히 떠올라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할머니가 되어있을, 누구의 어머니가 되어있을,/ 이름도 잊어버린 그 아이가 “오빠 나야!”/달려와 그 때처럼 내 손을 꼭 잡으며 결혼하자할 것만 같다./그러기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첫 사랑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 돈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순수하고 행복했던 낙원의 평화로운 동산에 전쟁이 찾아왔다. 1950년 6월 25일 63년 전 새벽 총소리 대포 소리와 불기

둥이 붉게 물들며 솟아오르는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마을 사람들은 네거리 우물가에 모여들어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온다고 수군거리며 불안 속에 걱정하고 있었다. 총소리 대포소리를 뒤로하며 하원정(지금의 을지로 4가 공장)으로 피신하는데 길이 가득하도록 피난 인파는 길을 배우고 총알은 소리 내어 귀를 스치고 옆에 앞에 가던 사람은 총에 맞아 쓰러진다. 우리는 무사히 공장에 도착하여 밀가마니로 사방을 막고 이불을 포개어 덮고 무서워 떨며 걱정하다 잠이 들었다. 1950년 6월 28일 천국 같은 곳은 한순간에 이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린 전쟁은 정말 무서운 것이었다. 둥이 트며 서울 시가지는 총소리와 대포소리가 멎고 조용해졌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따발총을 든 인민군이 도로 양쪽에 탱크는 복판에 줄서 의기양양하게 행군한다. 서울이 함락되고 시민들은 인민기를 높이 들고 환영한다. 건물들은 무너지고 길과 전신주에 시체가 널려있고, 총칼을 든 공산군은 사람을 잡아가고, 쫓겨가는 국군 아저씨와 피난길에 오른 시민

들……. 그 평화로운 골목 안을 시체가 뒹구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친जन만하고 순수했던 아이들의 손에 총을 들게 했으니 말이다.

1950년 7월 5일 미군과 북한과의 첫 교전이 있었고 7월 7일 안전보장이사회, 7월 20일 후퇴, 7월 25일 낙동강 남북 135km 동서 901km 방위선 부산만 남았다. 1950년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시 1950년 9월 16일 정오에 중앙청에 해병대가 태극기를 게양하고 압록강까지 북진하였으나, 아버지는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부르주아((bourgeois: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 노동자를 고용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라며 끌려가다 5일 만에 밭이랑



에 없드려, 아침에 들에 나온 농부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오서 전진과 후퇴의 전화(戰禍) 속에서 전학도 못하고 살았다.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메고 전화를 피해 수원에 가서 쌀로 바꿔 밥을 지어 먹는데, 밀기울과 삼각산에서 주어진 토리로 만든 묵만 먹다 밥을 먹으니 꿀맛이라 밥에 취하여 온 식구가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때 부모의 고마움, 밥의 소중함을 지금도 간직하여 귀하게 여기며 아끼고 살고 있다.

1950년 10월 26일 낮 압록강에 매복한 26만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전속 진격 우리 국군은 후퇴를 계속하고 있었다. 1950년 11월 3일 아버지께서는 “서울에 남아 사업체를 찾겠다.” 하셔서 어머니와 나와 동생들은 고향으로 피난길에 올랐다. 기차 지붕 위, 군용차에 탑승, 보행, 배를 타고, 기차선로 위에서 세수도 못한 까만 얼굴 차림으로 기차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 밥을 지어 먹기도 하고, 지붕 없는 기차에 외투를 벗어 우리를 덮고 당신은 밤눈을 흠뻑 맞으며 우리를 감싸신 기억 속에 어머니의 고마움을 말

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겨울이면 특히 눈이라도 오는 날이면 피난길에 있었던 일이 불효자의 가슴을 저리게 한다. 8일 만에 오후 보성

역에 도착, 업고, 이고, 지고 반바우 마을로 걸어가는데 동네 앞에 오니 서울 할아버지께서 눈에서 뺨단을 쌓으며 할머니께서 아침에 돌아가셨다며 알고 오느냐 묻는다. 하루라도 빨리 왔다면 기다리시던 할머니를 뵈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과 슬픔이 더한다.

일제 강점기 말기부터 나라의 분단과 전쟁 그리고 산업화와 정보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세대는 배고픔과 이별의 슬픔은 그 어느 세대보다 많이 겪은 것이 사실이다.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북괴군이 후퇴하기까지 한 달 넘게 장독 밑토굴에서 젊은이들은 두더지 생활을 해



야 했다. 6·25와 9·28 사이의 이 3개월이 지나고 어수선한 서울에 후퇴하는 부상병과 가솔바람과 먼지 속에서 나는 과일 자판을 놓고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장사를 한 유일한 경험이 있다. 1951년 일사후퇴 중국 인민 지원군의 개입으로 한국군은 다시 철수하게 되어 아버지께서도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에 오셨다. 반바우안산 집에 우선 기거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말매 집으로 들어가 가난한 피난살이가 시작되었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하시면서도 병원 치료를 극구 사양하시면서 “이제 다 살았다. 늙으면 다 그러는 걸, 돈 쓸 것 없다.” 누구 때문에 얻은 병인데 자식은 인사치레 말 뿐이고 부모는 자식 생각이십니다. 내리사랑이란 말로 위안을 삼지만 그럴수록 불효는 점점 더 커지기만 합니다.’

좋은 환경은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아니라 고운 마음씨로 서로의 사랑을 키워 가도록 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은 미움과 시기하는 마음만 키우는 것을 어린 나에게 일깨워 준 6·25가 벌써 63주년이다. 그 길고도 무서웠던 기억을 다시금 회상할 수 있는 것은 6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그 끔찍했던 무서움을 조금은 퇴색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의 일들과 유난이 눈이 컸던 그 소녀가 오래도록 소중하게 기억된다. 눈이 크고 얼굴이 까만 나의 첫사랑을 마음속 할머니와 어머니로 선물하고 싶다. 누구의 허락으로 전쟁으로 불행을 주고, 인생행로를 바꾸어 놓은 도둑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갔으면 한다. “국군은 죽어서도 말한다.”

보훈의 달 6월입니다. 아직도 이 땅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 우리는 해마다 보훈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이라 말하는 이 세계에서 단 하나의 국가 대한민국이 서로 대립한 채 갈라져서 서로가 각자의 체제에 깊숙이 들어가면서 통일의 길을 전혀 내어주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군은 죽어서도 말합니다. 이제는 원수의 피가 아니라 서로 끌어안는 평화의 피를 원합니다. 한 민족의 한 피로 서로 영기는 통일의 그 기쁨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 편집자 주

교도소에서 온 편지

익명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000이라고 합니다. 저번 달 초에 보내주신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놀랐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징역에서 소식지를 받아 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여기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스님들이 오셔서 불교교리 공부도 해주시고, 법회에서 좋은 말씀도 해주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차매행사'라는 것을 하는데 여기 안양에 있는 사찰 스님하고 신도 분들이 직접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다과도 함께하고 격려도 해주십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요즘은 부처님 오신 날 준비로 매우 바쁩니다. 재소자들 몇 명이 시

간 나는 대로 모여서 연등을 만들었습니다. 행사 때 사용하고 끝나면 스님들과 보살님들께 선물한다고 합니다.

교도소 하면 왠지 엄하고 답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생활을 해보니 사회에서의 편견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에 있을 때는 지로로 기부금을 납부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번 달에는 소식지를 보고 '이봉섭 어르신'의 사연을 보고 지문에 있는 계좌로 조금 입금을 했습니다.

많이 자주는 기부를 못하겠지만,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저에게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뚝이 인생

박인라

나의 삶은 오뚝이처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다.

아기 때는 경기를 자주 하여서 엄마·아빠를 가슴 아프게 하였고, 학창 시절은 그럭저럭 무난히 보냈다. 공부도 우등생이었고, 성실하여 통계부장도 하였고, 생활부장도 고등학교 때 잘 수행하였다. 부모님과 일가친척들에게 착실하고 착한 이미지를 주곤 하였다.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그만 첫사랑에 실패하여 마음의 병을 앓는 듯 부모님 기대에 실망을 주고 나 자신도 실패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였다. 부모님 형제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기르던 고양이라도 죽어 나에게 너무나 슬픈 기억을 남게 하였고, 사랑하던 아빠도 잃게 되어 나는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줄 알

았다. 아빠 없는 삶이란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다. 아빠를 보내고 나에게 닥친 고난이란 정말로 힘들고 울며 지냈다.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꾸준히 불교 서적을 가까이 하여 읽었으며, 내 고된 삶의 길잡이며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특히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에서 살인귀를 부처님이 신통력이나 위엄 권위가 아닌 자비로 귀의시켰다는 말씀에 너무나 감동받았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사랑을 베풀고 희생 봉사하는 오뚝이 같은 인생을 살 것이다.

나이 드시고 병약한 엄마를 잘 모시며 건강히 즐겁게 오래도록 함께 살고 싶다.



중앙모임 (02-741-4696~7)

부처님 오신 날과 함께한 맑고 향기롭게 캠페인

부처님 오신 날인 지난 5월 17일 길상사에서 녹색나눔장터와 더불어 친환경체험마당을 진행하였습니다. 친환경체험마당에는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투리 천을 활용한 나의 꿈 그리기, 나무공작, 이면지를 활용한 공책 만들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를 진행하여 노인자살문제에 대해 알리고, 맑고 향기롭게 스티커배포 및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장터에 판매할 물품을 후원받습니다. 그런데 간혹 판매할 수 없는 물건을 보내주곤 하는데, 너무 오래되거나 입지 못하는 옷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또한, 장터를 함께 진행할 분을 찾습니다.

법정스님의 '향기로운 글' 서화전

법정스님의 글에서 발췌한 주옥같은 명구(名句)들로 구성된 다양한 세필의 서예작품과 사진작가 전시회가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길상사 설법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추사체를 연구하는 서예가 동천 엄기철 선생이 법정 스님의 법문과 저서에서 가져온 말씀을 담은 서화작품 80여 점과 40여 년간 산골에서 사진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진작

가 월강 권영오 회원이 법정스님의 글귀를 따라 4년여 동안 찍은 사진 60여 점을 전시하여 선보였습니다. 두 분의 작가님은 전시회에서 판매된 작품의 수익금을 본모임으로 후원해주셨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 1. 아름다운 마무리 대학생 봉사자 모집** : 거리 홍보를 진행할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거리에서 행복 바이러스를 널리 전파하는데 동참해줄 활발한 성격을 가진 대학생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 2. 친환경 캠페인 함께 하실 분** :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친환경 수세미 뜨기, 친환경 달거리 만들기, 친환경 화장품 만들기,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을 만들어 녹색장터를 통해 판매하는데 도움을 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더욱 간편한 CMS 후원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 후원금액 변동, 중단 시에도 사무국으로 전화주시면 간편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회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일반사업후원계좌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아우후원계좌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문의 : ☎ 02)741-4696~7

6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식 우편발송/ 4일(화), 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아우 후원 밑반찬 조리 자원활동/매주 목-13,20,27일/금-7,14,21,28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물어도 좋을 일복 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매주 월요일(3,10,17,24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나누기 등/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활동/둘째, 셋째 일요일(9,16일)/오전 9시30분~12시/청소년 봉사자
- 모희원(치매노인 요양시설)/봉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활동/첫째 일요일(2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봉사일 돕기)/일반 자원 활동가
- 진인노인 요양원/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 마당 정기자원활동/둘째 일요일(9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매월 셋째 목요일(20일)/오후 2시/세계일화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5,12,19,26일 오후 1시 30분(삼푸, 로션, 에센스, 한방비누)/세계일화실, 비누는 맑고 조리장/선착순 7~8명/재료비 본인 부담
- 류류재활용 봉사모임/매주 화요일 의류재활용 리폼/세계일화실
- 숭기행/1일/공주 생골마을, 마곡사
- 녹색나눔장터/30일(일)/길상사 트랙/오전 11시~오후 3시



대구모임 (053-753-8883)

6월 정기 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 수시모집
 - 토요일로급식 및 웃음교실/매주 토요일/9시부터 음식조리, 2시 마무리
 - 롬비니동산(장애아동 보호시설) 자원봉사 활동/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매월 셋째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식사케어,빨래정리,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매월 첫째 화요일 11시부터
 - 아름다운가게 되살림터 봉사/매주 목요일 오전10시 ~ 12시
 - 운영위원회의/매월 둘째 금요일 오후 7시 30분
-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6월 정기 활동 안내

- 광주모임이 광주광역시 동구자원봉사센터 1365 자원봉사활동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소중한 도움이 손길이 수시로 필요하오니 많은 참여

- 바랍니다.
 - 6월 5일(30회) 독서모임 안내
 - 도서명 : 맑고 향기롭게
 - 주제 : 일상의 변화
 - 토론 : 내 생명의 줄기(사명감)
 - 장소 : 광주모임 사무실
 - 광주모임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80개의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으며, 점심공양나눔의 집을 신설하여 저소득층과 고령층 대상으로 하루 100명분, 일천원의 식대로 12시에서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범능스님과 함께하는 노래모임 회원모집
 - 자격 : 노래를 좋아 하는 분
 - 회비 : 매월2만원
-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6월 정기 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활동-매월 셋째 주 수요일/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활동-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14시/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5시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재현이네와 10가구)-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쌀, 밑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질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구입문의 ☎(055)266-0170
-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만들기 수강 신청하세요. 매월 첫째주 / 셋째주 수요일 오후1시 30분/재료비 22,000(수강료 없음)/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6월 정기 활동 안내

- 광애우 이동목욕
 - 매주 수요일/0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르신 목욕
 - 매주 목요일/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 매주 금요일/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인 이동 목욕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09:30~13:3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월 1,3주 금요일/09:30~12:00
- 매달 첫 번째 토요일-물문대 종합사회복지관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지역정화활동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달 네 번째 금, 토요일-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3 / 이상오

대전모임 (042)823-0770

- 충남대 대불련 후원
- 자혜원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지역불교문화행사 동참
 -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 (사)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다라니 기도

- 일시 : 6월 1일 (오후8시~10시)
- 장소 :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 일시 : 6월 8일 (오후9시~다음날 오전4시)
- 장소 : 길상선원
- 법사 : 주지스님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6월 8일
(오후 8시30분~다음날 오전 4시까지)
- 장소 : 극락전
- 준비물 : 물병, 수건, 좌복보호대

6월 주말 선 수련회

- 일시 : 첫째주말 15일(토)~16일(일)
넷째주말 22일(토)~23일(일)
- 참가비 : 5만원 (입금순50명)

기초경전 개강안내

- 개강일 : 5월22일 매주 수요일 (12주과정)

- 수강료 : 6만원
- 강의경전 :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 강의시간 : 주간반(오후1시30분~3시30분)
야간반(저녁7시30분~9시30분)
- 접수 및 문의 : 교무실(3672-0036)

백중 아미타 90일 기도접수 안내

하안거결제에 맞추어 백중 아미타90일기도를 봉행합니다. 수희동참 하시어 조상영가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연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아울러 자기의 업장을 참회하고 소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 입재 및 회향 : 5월 24일~8월 21일
- 장소 : 극락전

일주문 단청불사 안내

'불사(佛事)' 스스로 함은 물론 남을 시켜하거나 남에게 권하기만 하여도 불도를 이룬다. 불사는 복전으로 모든 중생에게 복의 종자를 심는 터전이라 하셨습니다. 이 뜻 깊은 일주문 단청불사에 동참하시어 소중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보살행을 실천하실 자원봉사자 모집

나와 남을 이롭게하는 이타행을 실천하시면서 신행생활을 하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원봉사자로서 길상사와 맑고 향기로운 인연지으실 분은 중무실로 문의해주세요.

7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관음재일	7월 2일 / 7월 3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기도	7월 6일	오후 8시	극락전
초하루	7월 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백중초재	7월 10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7월 13일	오후 9시	길상선원
삼천배 철야정진	7월 13일	오후 8시 30분	극락전
백중2재	7월 1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백중3재	7월 2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7월 25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백중4재	7월 3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 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일	새벽4시/오전9시 50분 저녁7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50분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적묵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거사님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합창단 정기법회	매월 넷째 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새신도교육	매 주	오후 1시 20분	소강당